

전남도,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 넘어 해양수산 수도로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핵심사업 국비 6천472억원
국립김산산업진흥원 설립·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등 반영
고부가가치 창출·해양관광 기반 구축 위한 재정 기반 마련

전라남도는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돼 2026년 국비 6천4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김 산업을 비롯한 해양관광, 항만기반 구축,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 등 전남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반영 사업은 ▲국립김산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설계용역 35억 원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4억 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7억 원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2억 원 ▲광양항 제 품부두 전면항로 준설사업 3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15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79억 원 등 114건, 6천472억 원이다.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국립김산산업진흥원 설립은 국가 핵심 식품산업인 김 산업을 종합 컨트롤 타워로 전담기다.

김 종자 개발에서 기초 연구개발(R&D), 생산·가공기술 개발, 수출까지 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김 산업 주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산업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함으로써 전남의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험 기회 확대로 해양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



해양수산산업국비 확보-국립김산산업진흥원조감도

원(총사업비 1천697억 원)과 '여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총사업비 1조 980억 원)은 전남도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남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수산물 고부가가

치 친환경 자원화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전남 수산업의 기반 강화도 기대된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6년 해양수산 분야 국비 확보는 전남의 수 산업을 비롯한 해양관광, 항만 분야 기반 강화를 위한 전반적 예산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양경자청, 유관기관 공동 투자유치 워크숍

전남TP, YGPA, 율촌해룡산단협의회 등 네트워크 강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2025년 GFEZ 투자유치 유관기관 공동 워크숍'을 열고, 광양만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 율촌·해룡산단협의회를 비롯해 순천시, 하동군 등 인근 시·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날 18일에는 ㈜드림스폰서 신용선 대표의 AI 산업 동향과 기업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여수·광양항 배후단지 조성 현황과 산업단지 지원사업 등 주요 투자 여건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 김진영 약사의 건강 관리 강연과 함께 율촌·해룡산단협의회의 산업단지 운영 현황 공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광양경자청, YGPA, 전남TP, 율촌해룡산단협의회는 광양만권의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등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반자"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 직원들 간의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시, 김장대전 흥행... 매출 20.8억 역대 최대

프로그램 연중 운영... 1만8000명 292톤·판매액 17.3% 증가

월28일부터 12월14일까지 진행된 '김치대전 분행사'에는 1만4000여명이 참여해 총 268t, 18억7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첫 개최 이래 최고 실적이며, 지난해 판매액 17억7000만원(275t)보다 17.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과는 참여 인원과 매출액이 모두 늘며 김장대전의 성장세를 입증한 것으로, 광주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택배 주문 금액이 전년 대비 47.1% 늘어 광주김치에 대한 전국 수요 확대와 함께 김치 소비문화 변화를 확인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등 53개 기관·단체가 김치 30.9t을 취약계층에 기부해 단순히 김치 판매만이 아닌 나눔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장대전에 사용된 배추·소금·고춧가

신영길 기자

루·멸치액젓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구매에 활용했다.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 개발한 조리법을 적용해 품질 신뢰도도 높였다.

현장 버림 김치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6만6000원(10kg 기준)에 제공돼 시민 호응이 컸다. 주말에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광주시는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과 분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운영 전략이 광주김치 충성 고객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남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위해 유기농자재 지원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서 유기·무농약·일반농가 등 접수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유기농업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와 자운영, 수단그라스,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등 녹비작물 종자 5종이다.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농 200만 원, 무농약 150만 원, 관행농업은 100만 원 한

도이며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자운영·수단그라스 50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 자격은 유기, 무농약, 일반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 조성,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 총 1천979억 원의 미래에너지 핵심 사업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해상풍력·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업은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1천196억 원(총사업비 1조 30억 원)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 245억 원(총사업비 490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 원(총사업비 495억 원)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5억 원(총사

전남도, 미래에너지 핵심 사업 국비 대거 확보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등 재생에너지·전력망 분야 1천979억

업비 425억 원)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93억 원(총사업비 300억 원)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오버어링) 시험센터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50억 원) 등이다.

전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접속지연 완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남은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문제 해소가 시급한 지역으로, AI 기반 ESS 구축과 공유형·커뮤니티 ESS 도입을 통해 지역 단위의 총

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모델을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 조성,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2027년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도 국비가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 사업들은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생태계

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광주를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청년 인재와 에너지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는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부품인 피치·오버어링 내구성 시험센터가 구축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는 15MW급 이상 초대형 해상풍력 베어링 내구성 시험 인프라가 없어 국내 기업이 유럽 시험기관을 이용하며 장시간·고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시험센터가 구축되면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은 물론 해상풍력 연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철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